

“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

■ 이종윤 원로목사

이미 만들어진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도 있고, 자신이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다.

전자(前者)에 비해 후자(後者)가 창조적인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옥중에 갇혀 있던 바울 사도에게는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했다. 간수를 비롯해서 그와 접촉하는 가이사의 집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세상이 내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할 일이 없다고 빈둥거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에게는 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만들어 할 줄 아는 슬기와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앞길은 평탄대로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적 성숙성(Spiritual Maturity)을 갖추고 학문의 지고성(Academic Excellence)으로 훈련받은 창조적 인생관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인재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창조적인 인재란 또한 이웃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노예로서 배신자요, 무죄한이었건만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선도하여 자기의 심복지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직장에서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세상을 저주하고 일터를 비난하는 수가 있다.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뭐기에 세상이 내게 굽신거리고, 직장이 나를 상전 취급 대우하겠는가?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주고, 친절을 베풀면서 겸손히 섬기면 자연히 친구가 생길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는 식으로 이웃과 담을 쌓아 가면 그는 이웃이 없는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악인을 선인으로, 쓸모없는 이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품위 있는 인격과 전문인이 될 때 창조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만드는 창조적 인물은 환경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감옥이란 지겹고 불결하고 부자유하여 고생스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감옥을 기도과 묵상과 영적교제의 장소로 만들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중 상당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성소(Holy Place)로 만들었다.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살출을 모른다면 에덴동산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다. 일을 만들어 하고, 친구를 만들어 사귀고, 환경을 만들어 사는 창조적 인재가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창조에 동참자가 되고 쓰임 받는 일꾼인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2015년 6월 27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가을의 빛이 초록 잎새 사이로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의 변화에 한층 성숙한 신앙 자세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 소원합니다.

한편, 2015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가 9월 29일(목)~30일(금)에 열립니다. 최근 수해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섬김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성도들 사이의 만남과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며, 자연스럽게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였음을 이웃에 알리는 전도의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918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한 사람의 회개 ”

■ 요나 1:1-6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민족, 국적, 성별, 직업과 계층 등 모든 차이에 관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나는 개인적으로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옴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1.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는가?

역사적으로 요나는 아모스, 호세아 등과 같은 BC 800년 전후 시대였습니다. 당시 앗수르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로 악명 높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앗수르에 대한 반발과 혐오감이 극에 달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앗수르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앗수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역사의 순리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며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고 더구나 사랑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요나처럼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해서 안 될 사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 왜 그는 풍랑을 만나야 하는가?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요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듯 세상이 교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나 홀로 잠을 자듯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공동체, 사회공동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장은 ‘일어나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으며 선지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진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그 누구도 혐오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3.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이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인식했습니다. ‘...대답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고통의 상황을 종결지은 것은 한 사람의 회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하시는 겁니까? 뱃사람 모두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게 하시면서 요나를 따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도 원하시지만 먼저 요나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을 평생 살아야할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기어이 그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선지자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의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변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시 간	인 도	기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서은석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김광태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138: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5(시 27)...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73(331)...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은 1: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한 사람의 회개”...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26(215)...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63:3-4 인 도 자
 찬 송 36 다 합 께
 기 도 하상영 집사
 찬 송 331(375) 다 합 께
 성 경 왕상 6: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성전 건축의 은혜” ... 설 교 자
 * 찬 송 332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기 도 ... I부: 김미선 권사 II부: 조경숙 권사
 성 경 창 2:18-2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타인으로부터 오는 함”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회소식

모임

1. 바자 준비 모임 / 18일(주일) 오후 12시30분 802호
2. 한나전도회 월례회 / 18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3. 디자인팀 모임 / 18일(주일) 오후 1시 609호

알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새가족소개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네 번째 세례식인 10월 세례(입교, 유아세례)식이 10월 1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기간: 9월 18일(주일)-10월 2일(주일)까지
 *입교와 유아세례 문답 및 교육: 10월 9일(주일)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11명	402명	1,923명	379명	1,994명



희망의 창문을 열어라

회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삶이란 불행의 연속이라 한다. 자기 욕망이 충족 되지 못할 때 오는 불만과 충족되었을 때 오는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기 때 문이라 한다. 이처럼 비관주의적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다.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가진 자들, 늘어만 가는 외채, 비교육적 교육 현실, 정도를 이탈한 종교인들 모두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요 절망스런 것들 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살 만하며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낙관적 생각을 갖고 보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엔 오염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고 진리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좌절보다는 창문을 열고 희망의 빛을 보고 일어서야 할 때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일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양대						봉헌송		
예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욘 1:6)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II부	시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